

광주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에서 클럽 대표와 클럽 매니저 5명, 손님 2명 등 20~30대 8명을 마약류관리예관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부산의 한 클럽 운영자로부터 공급받은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을 주고받으며 자택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이 곳에서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귀가 중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은 지난해 9월 말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베트남 불법체류자 4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베트남에서부터 알선 선후배 사이로, 본국에서 몰래 입수해 온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클럽과 인근 자택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하고 엑스터시 616정과 케타민 14.4g을 압수했다.

MZ세대 파고 드는 마약

광주 경찰, 3년간 698명 적발...10명 중 4명 20대 이하 클럽 등서 유통 "끝까지 추적 사회적 해악 뿌리 뽑겠다"

광주·전남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에서 마약 거래·투약 혐의로 붙잡힌 이들 절반 가까이가 10~20대인 MZ세대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은 지난해 하반기(8~12월)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3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검거한 93명보다 53.7% 증가한 수치다.

마약은 주로 클럽 등지에서 유통됐으며, 압수물품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경찰은 이 기간 마약사범 3명, 대마사범 2

명, 향정사범 38명 등 총 43명을 검거했으며, 전남 경찰은 마약사범 14명, 대마사범 14명, 향정사범 72명 등 총 100명을 붙잡았다.

광주경찰은 엑스터시 616정, 케타민 14.4g, 필로폰 3.5g 등을 압수했으며 전남경찰은 필로폰 45.88g, 양귀비 804주, 야바 10정 등을 압수했다. 이 중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 필로폰, 야바는 모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양귀비만 마약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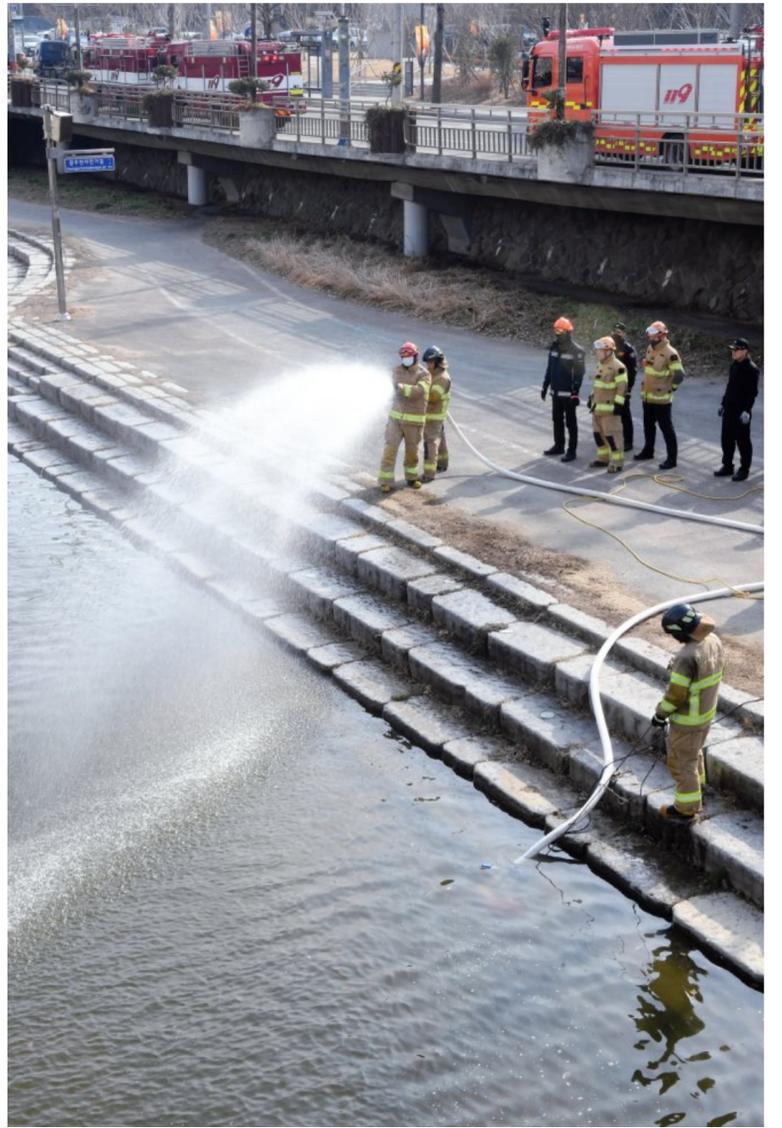
최근 3년간 광주·전남 마약류 사건 검거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10~20대 MZ세대 마약사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마약사범 연령대도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은 지난 2020년 304명, 2021년 153명, 2022년 241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는데, 이 중 2020년 122명, 2021년 57명, 2022년 128명이 20대 이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간 붙잡힌 698명 중 307명으로 43.9%가 10~20대인 것이다.

전남경찰 또한 지난 2020년 236명, 2021년 168명, 2022년 295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으며 이 중 20대 이하 사범은 2020년 23명, 2021년 56명, 2022년 57명으로 차츰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최근 10~20대 젊은이들이 클럽 등지에서 '손 대 손'으로 은밀하게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마약을 공급한 윗선을 밝혀내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마약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소방용수 확보 훈련 광주동부소방서 소방관들이 1일 광주시 동구 수기동 광주대교 일대에서 고압 펌프기를 설치해 광주천 물을 끌어올린 뒤 소방용수로 활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펌프기를 이용하면 3분여만에 3t들이 물탱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달릴수록 적자" 광주 복구, 마을버스 노선 손본다

버스조합 적자보전 요구에...788번·799번 검토 후 8월 조정안 확정

연료비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자 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마을버스 회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 자치구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광주 북구는 지역 내 마을버스 3개 노선 중 788번, 799번 2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최근 광주지역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재정 지원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에는 현재 '나라운수', '나라버스', '광남운수', '석봉운수', '광산버스' 등 5개 업체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85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북구는 이 중 북구 내에서 운행하는 788번(남부

대 시립국제수영장-시화문화마을문화관), 799번(살레시오고-김대중컨벤션센터역) 2개 노선을 노선 조정 대상으로 올렸다. 788번 노선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799번은 지난해 3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최근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들 노선에 대한 대체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용 만족도와 승·하차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노선 신설, 대체 노선 발굴 필요성 등을 조사·분석하는 용역이다.

북구는 오는 8월까지 이들 노선에 대한 조정안을 확정해 광주시에 노선 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5개 마을버스 업체로 구성된 '광주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은 2일 광주시 구청장협의회에 시·구비 매칭을 통한 마을버스 재정 적자 지원 요청문을 전달했다.

요청문에는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 연간 마을버스 운영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조례로 만들어 지속적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은 이날 '마을버스 지원 조례화' 목소리에 공감하는 마을버스 승객 4000여명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명 또한 광주시 구청장협의회에 전달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민의 발이자 광주시 교통의 싹쓸이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자치구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구청장협의회를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에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검, 6개월간 불법촬영물 1600여개 삭제

광주지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에 나섰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월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광주지검이 수사한 사건과 관련된 불법촬영물 총 1600여개(피해자 160명)에 대한 삭

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구를 위해서는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의 심리치료·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두달간 학교를 방문한 시설 관리업체 직원이 교직원들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

건과 관련해 기록상 피해자들을 가명 처리한 뒤 범행 영상을 삭제 및 차단을 의뢰했다.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 21명에게 대가 지급 후 성착취를 하면서 제작한 영상 1098개의 유포도 방지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동안 청소년에게 접근해 정선적으로 길들인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이른바 성그루밍범죄를 저지른 성인 남성에게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고, 관련 영상 119개를 없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한달 더'

연말연시 사고 감소 등 효과에 이달 말까지 연장키로

광주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 기간을 한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31일까지 7주간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결과를 1일 내놓았다.

7주간 음주 교통사고는 42건이 발생해 사망자는 없고 70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480건으로 하루 평균 11.4건 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음주 교통사고 발생

(49건)과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82명) 모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음주 단속에 걸린 건수는 18.8%(404건→480건)으로 증가했고 불시에 두차례 실시한 출근길 숙취음주단속에서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1~2월에 음주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속 기간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